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채경희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Kyung-Hee Chae
Dept. of Christian Edu, Chon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탈북학생 중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로 정하여,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18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관계를 밝힘으로써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 수준의 증진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of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selected among student North Korean defectors aged between 9 and 24 years. With these participant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4 to December 14, 2019. Two hundred eighteen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es, which were conducted with SPSS 23.0 and AMOS 23.0. The analyses yielded the following findings. The self-differentiation of the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positiv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self-differentiation of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positive impact on social support, and the social support of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positiv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of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This study showed that by improving the level of social support and self-differentiation of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it would be possible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sues.

Keywords :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 Support,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Chae(ChonShin Univ.)

email: khchae88@naver.com

Received April 17, 2020

Revised June 18, 2020

Accepted July 3, 2020

Published July 31, 2020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하여 2006년 2월에 1만 명, 2010년 11월에 2만 명, 2016년 11월에 3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8년 9월까지 32,147명(여성 72%)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10~19세가 약 11.6% (3,632명)인 것을 볼 때, 청소년의 비율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서는 '탈북청소년'의 범위를 북한에서 출생한 청소년과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모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북한에서 출생한 청소년을 '탈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식의 교육을 받아온 북한이탈청소년은 성장 단계적으로 자아정체감과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이지만,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발달과업을 위한 사회적지지망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장 기본적 지지망인 가족을 상실 혹은 해체된 상태가 대부분이다[2]. 남북하나재단(2017)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탈북학생의 가족유형으로는 한 부모 가정이 49.4%로 가장 많았고 부모-자녀가정이 44.8%, 조손가정이 2%, 혼자서 생활이 1.8%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에 더하여,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과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탈 과정 동안 생긴 학력 공백으로 인한 학업상의 어려움, 학업 수준에 맞춰 2~3년 아래 연령의 학급으로 편입함에 따라 생긴 연령 차이 극복의 어려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며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제3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다[4].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기에는 특히 자아분화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다양한 문제해결력이 더욱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5]. 자아분화는 Bowen(1978)의 가족체계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이 가족과 적절한 정도의 친밀감과 분리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과정과 지적 과정을 구분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감정 에 휘말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직면하는 상황들에 보다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분화의 수준이 낮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지고, 만성불안이 증가하며, 더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된다[6]. 이를 볼 때, 청소년기의 심리·정서적 건강성은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가정적 변인보다, 가족구성원 전체의 심리·정서적 상호 작용, 즉, 가족의 역동성의 결과로 획득된 자아분화의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7]. 또한 청소년기의 자아분화 수준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8]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3)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찾은 청소년들의 상담내용의 1위는 대인관계문제(31.3%)였다. 2013년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24세 청소년 73만 4,692명 중 여학생의 24.3%가 고민의 1위를 대인관계 문제로 꼽았다[9]. 대인관계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청소년 시기는 사춘기를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시기로서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10]. 인간은 독특한 사회적 존재로서 가족, 친구, 동료, 선후배 등 그를 둘러싼 모든 사회와 지속적으로 중요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11]. 이렇듯 생애 전 과정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는 한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이탈청소년들은 25% 정도가 혼자서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삶의 배경이었던 가정, 이웃, 친구 등 사회적 지원원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12].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체계를 개발 및 향상시킴으로서 환경적으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행동으로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3]. 이러한 맥락으로 Cobb(1976)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친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받는 자원으로서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4].

북한이탈청소년은 폐쇄된 북한사회에서 성장해 온 환경과는 상이한 남한사회에서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거

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만한 사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망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사회적지지가 크게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친밀한 상대로부터 받는 지지일수록 강하게 지각하고 있었고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 중에서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자각하였다[15]. 또한 이규관(2017)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지지만큼 매우 유의하다고 보았는데, 부모와의 갈등으로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가 없이 단독 생활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후원자의 역할은 이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여러 연구들[17-18]은 개인의 사회적지지는 낙선 환경과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4], 남한사회에서의 경제관념 부족, 학교생활부적응 등의 대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5].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성공 및 좌절을 겪게 된다[19].

따라서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며 위태로이 서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20]. 지금까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영역은 정책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졌으나, 반면 이들의 심리내적 부분인 자아분화의 수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북한이탈청소년 자신의 몫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지지로 인하여 개선될 수 있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8, 10, 22, 58-58, 61-6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자아분화 수준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 변인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착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아분화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는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써,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분절시키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성숙함을 가지는 자질로 정의할 수 있다[21]. 또한 자아분화란 개인의 독특성을 유지하고 타인의 정서에 직면하고도 휘둘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하는 감정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22].

특히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자아분화는 자신에 대한 지각과 통제력을 갖추고, 주변 환경에 건강하게 기능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발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3]. 즉, 자아분화는 치료와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분화는 부모-자녀 관계와 대인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으로서 1950년대부터 발달된 중요한 가족체계이론 중 하나이다. 자아분화는 Bowen(1976)에 의해 제시된 가족체계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정신내적이면서 대인관계에 관련된 개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체의 성장과정에서 그의 내면은 개별화와 일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개별화와 일체성의 수준에 따라 타인과의 밀착 또는 단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24].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임수진과 이재신(2017)은 자아분화를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정체성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5].

Kerr와 Bowen(1988)은 자아분화가 정서적 지능, 지적 기능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개인내적인 측면과 자신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정서적 친밀 관계를 맺는 대인 관계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21]. 주된 하위요인으로는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 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다섯 가지이다[24]. Kerr과 Bowen(1988)은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만성불안과 스트레스를 들고 있다.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쉽게 불안해하며 이러한 불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긴장하게 되고, 개인의 역기능을 가져와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21].

따라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는 자제력을 가지고 이성과 감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며, 대인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지각하여 자주적·독립적 입장을 취한다.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절

제하지 못하고, 객관적 지각 능력이 떨어지며, 의존적·역기능적 행동을 자주 나타낸다[26]. 또한 대체로 타인과 융합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를 단아버린다[21].

김용태(2000)의 연구에서도 자기분화를 이룬 사람은 충분히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자아를 발달시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믿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줄 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친밀한 접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27]. 분화가 잘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고,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8].

이와 같이 자아분화 수준은 사회적 관계망과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 자아분화에 대한 탐색할 심도 깊게 할 필요가 있다.

2.2 대인관계

일찍이 개인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환경을 통해 움직이며 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한 것이다. 그만큼 대인관계가 인간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이 방면의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개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둔 심리학과 집단을 전제로 한 사회학 사이에서 소외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29]. Heider(2013)는 대인관계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며[30], 개인이 타인을 어떻게 느끼고, 지각하고,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며 타인이 스스로에게 무슨 생각이나 행위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인 양식이라고 하였다[31].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비교하여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적, 정의적, 사회적인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이다. 대인관계이론에서는 청소년기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대인관계가 그 이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인관계 태도와 행동을 촉진한다고 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 대인관계상의 공포를 경험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억압하게 된다고 하였다[32]. 실제로 학교 및 사회에서 청소년 후기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앗아가기도 하는데, 상담 및 교정기관 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되어 있다[33]. 권석만(1995)은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대인관계문제는 의존성, 대인불안 장애, 공격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34].

원만한 대인관계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실제 Corsano 외(2006)는 부모 또는 친구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과 불만감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35]. 또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본인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36].

반면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낮은 학업성취와 청소년 시기에 달성되어야 하는 자기개념,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고 회피나 억압, 공격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37]. 이와 같이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형성 경험은 청소년기 이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형성, 그리고 그와 관련한 대인관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아분화[48], 공감능력[39], 정서표현성[40], 자기개념[41] 등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42-43], 부모애착[45], 대인 간 외상경험[46], 아동기·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47] 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단순히 개인변인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간에 인과관계만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소년의 내재적 요인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개인적인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환경으로부터 개인의 안녕과 건강에 기여하는 사회적 힘으로 인식되면서 사회과학 및 보건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 자원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12].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원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48], Dunst(2000)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정보 및 물질과 같은 자원을 의미한다[49]. 또한 사회적지지는 친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받는 자원으로서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14]으로 정서적, 도구적, 정

보적, 평가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포함한다[58]. Thoist(1986)는 사회적지지를 이해, 애정, 수용, 자존심, 사회·정서적 지지와 조언, 정보, 경제적 도움 등의 구체적 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48], House(1981)는 사회적지지체계를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로 구분하고 있다[51-52].

그러나 여러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성인과 구조와 기능에 있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가족과 또래, 교사 등이 가장 의미 있는 타자가 되며 사회적지지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사람들임이 보고되고 있다[12]. 장창호(2001)는 부모가 함께 있는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와 가치관의 차이, 일방적인 규칙 등 경직된 분위기 등으로 생활에 대한 규제를 받을 때는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53].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운숙(2006)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으로 공식적 지지망 유형에서는 교사(15.7%), 종교 관계자, 민간단체 관련자(7.0%)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공식적 지지망 유형에서는 가족(27.5%)과 남한 친구(11.3%), 북한친구(10.4%), 공동체 가족(4.25%)으로 나타났다[54]. 즉, 이들 중 대부분은 탈북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요한 사회적지지기반인 부모, 형제, 학교, 친구 등을 상실하였으며 새롭게 사회적지지망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지지보다도 대인관계에 의존한 정서적지지에 많이 의존하는 것을 나타낸다. 계은진(2018)의 연구결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자신과 동질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대상이 주로 부모라고 하였다. 또한 친밀한 상대로부터 받는 지지일수록 강하게 지각하고 있었고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 중에서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지라고 응답했다고 보고하였다[55].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의 적응과 적응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지지망으로부터 얻는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선행연구

2.4.1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자아분화의 핵심개념인 정신내적인 분화는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키는 능력을 말하며, 대인 관계적 개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고한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거짓 자아가 발달되므로 일관된 자신의 신념이 없고 자주

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56]. 따라서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에도 매우 치명적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유리와 홍정순(2016)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아분화수준이 높다는 것은 개인 내적 측면에서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관계적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 및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57].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여 고립되어 있거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22].

특히 이은재(2008)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부갈등과 자아분화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부부갈등 보다도 자아분화가 또래관계의 부정적 요인보다 더 큰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냈고,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증가함을 보고했다[58]. 이는 조연주(2011)의 연구결과를 볼 때도, 청소년들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는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7].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8, 10, 38]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과 대인관계 간에 대하여 주요성을 시사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핵심적인 관계라 볼 수 있다. 다만,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가 더 유의할 것이라 판단된다.

2.4.2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

자아분화는 원가족에서 분화된 것으로 자아분화가 높으면 친구의 지지, 사회적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립적이고 연합적 관계를 잘 형성한다[60].

박양균(2015)의 연구에서는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가족퇴행은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인지정서기능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정서적 단절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정보적 지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1]. 자아분화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의 역기능적인 교류와 그

에 대한 정서적 문제는 자아분화의 낮은 수준을 야기하고 부정적 사회적지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61]. 이는 안유진(2016)의 연구에서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62].

Sutherland 외(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63], 최연실과 김현영(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64]. 이와 같이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사회적지지를 더욱 잘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분화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4.3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소가 사회적지지임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고되어오고 있다.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양영은(2010)의 연구에서는 인간관계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고,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사회적지지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66].

북한이탈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중 교사지지는 대인관계, 적응성, 책임성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12]. 이러한 결과는 Furman과 Buhrmester (1985)의 연구에서 교사는 도구적 도움에서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되며 즉, 아동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정 중심의 존재에서 학교 중심의 존재가 되는데, 이때 교사는 아동에게 작-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67].

특히 청소년시기에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또래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김명숙(1995)이 지지원에 근거하여 가족, 또래, 교사에 대한 지지지각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각수준을 비교한 결과 또래지지가 가장 높게 지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68]. 즉,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으나 또래지지가 낮으면 대인관계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또래관계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 오난희(2003)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69].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여러 방면에서의 사회적지지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대인관계 개선이 용이하다는 점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인간의 관계 규명을 통하여 추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는 낮고[7], 사회적지지의 수준도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3, 62]. 또한 청소년이 사회적지지로서 가장 많이 인식할 수 있는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밝혔다[68]. 박양균의 연구에서도 자기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61],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68-69].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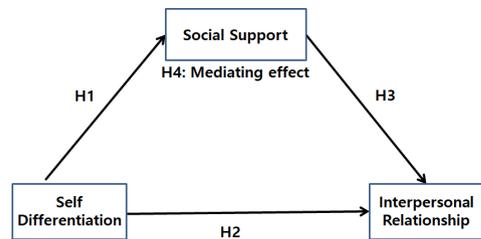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H1.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미만)의 범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청소년 중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로 남한 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 퇴소 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정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 과정에서 일반 학교 과정과 상이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재학·휴학인 학생은 제외하였다.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자들이 직접 탈북청소년을 대면하여 일일이 문항을 체크하고 응답하는 방식을 취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230부 중 21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5.8%를 기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AMOS 23.0과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다세대 전이과정을 통하여 자아분화가 자녀에게 투사되며 자신의 미성숙 및 미분화를 전달하는 Bowen 가족체계 이론을 근거로 제석봉(1985)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70]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이경희(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이다[71].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며 인지기능 대 정서적 반응 5문항, 자기입장 5문항, 타인과 통합 5문항, 정서적 단절 5문항, 정서적 융합 5문항의 총 5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아분화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도출한 결과, 자아분화 전체는 0.919,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인지기능 대 정서적 반응은 0.847, 자기입장은 0.819, 타인과 통합은 0.804, 정서적 단절은 0.768, 정서적 융합은 0.868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아분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3.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Zimet 외(1998)이 제작한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김도희 외(2007)가 재구성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72-73].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원 도구의 '친구'요인을 확장하여 이를 한국친구 및 본국친구로 나누었다. 따라서 수정된 사회적지지 척도는 가족

4문항, 본국친구 4문항, 한국친구 4문항, 사회단체 4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지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도출한 결과, 사회적지지 전체는 0.914,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는 0.758, 본국친구는 0.832, 한국친구는 0.698, 사회단체는 0.752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김연희(1999)가 제작하고 강귀애(2014)가 재구성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74-75].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또래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도출한 결과, 대인관계 전체는 0.929,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또래관계는 0.934, 교사관계는 0.870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는 남성이 53.7%(117명), 여성 46.3%(101)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10세-12세 20.2%(44명), 13세-15세 25.7%(56명), 16세-18세 24.3%(53명), 19세-21세 29.8%(65명)로 나타났다. 가족 동거 유무로는 그렇다가 80.7%(176명), 아니다 19.3%(42명)이며, 남한 거주 기간으로는 3년 이하 32.6%(7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N	%
Sex	Male	117	53.7
	Female	101	46.3
Age	10 to 12 years	44	20.2
	13 to 15 years	56	25.7
	16 to 18 years	53	24.3
	19 to 21 years	65	29.8
With or without family	Yes	176	80.7
	No	42	19.3
	Seoul	97	44.5
Residence	Gyeonggi-do	84	38.5
	Incheon	29	13.3
	Etc	8	3.7
South Korea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71	32.6
	4-6 years	94	43.1
	More than 7 years	34	15.6
	More than 10 years	19	8.7

명), 4년-6년 43.1%(94명), 7년 이상 15.6%(34명), 10년 이상 8.7%(19명)이다.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 44.5%(97명), 경기 38.5%(84명), 인천 13.3%(29명), 기타 3.7%(8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아분화,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의도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치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143.693$, $df=40$, $GFI=0.913$, $AGFI=0.856$, $RMR=0.053$, $IFI=0.946$, $RMSEA=0.099$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Table 2>와 같이 요인부하량(λ)의 값은 0.696에서 0.892로 나타남으로써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Self Differentiation	→ Emotional Reaction	.754	.297	-	.924	.709
	→ Self-Position	.696	.397	6.131***		
	→ Integration	.814	.160	12.919***		
	→ Emotional Disconnect	.707	.208	11.196***		
→ Emotional Convergence	.819	.122	12.988***			
Social Support	→ family	.761	.170	-	.946	.815
	→ Friend (home land)	.803	.205	18.576***		
	→ Friend (Korea)	.874	.146	15.103***		
	→ social organization	.892	.109	15.448***		
Interpersonal Relationship	→ Friend	.784	.325	-	.849	.738
	→ Teacher	.871	.162	15.397***		

*** $p<.001$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절대 값 0.211에서 0.800의 범위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에서 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 미만으로 나타났고, 첨도와 왜도가 ± 2 를 넘지 않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관해 개념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 및 집중타당성이 성립되었으며, 법칙타당성 및 판별타당성도 성립이 되어 제거된 항목을 제외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개념타당성 및 신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Variabl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1										
②	.255**	1									
③	.605**	.277**	1								
④	.518**	.291**	.549**	1							
⑤	.611**	.324**	.700**	.598**	1						
⑥	.296**	.356**	.211**	.231**	.109	1					
⑦	.386**	.392**	.357**	.293**	.230**	.800**	1				
⑧	.424**	.408**	.429**	.384**	.335**	.616**	.727**	1			
⑨	.444**	.300**	.391**	.327**	.288**	.633**	.682**	.708**	1		
⑩	.427**	.447**	.345**	.301**	.309**	.591**	.667**	.660**	.610**	1	
⑪	.467**	.346**	.411**	.439**	.312**	.621**	.713**	.654**	.669**	.719**	1
skew	-.350	-.099	-.081	-.120	.178	-.179	.065	-.464	-.492	-.387	-.385
kurtosis	-.323	.389	-.534	.182	-.257	-.692	-.795	-.489	-.287	-.318	-.588

** $p<.01$

① Emotional Reaction ② Self-Position ③ Integration ④ Emotional Disconnect ⑤ Emotional Convergence ⑥ family Support ⑦ Friend (home land) Support ⑧ Friend (Korea) Support ⑨ social organization Support ⑩ Friend Relationship ⑪ Teacher Relationship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143.693$, $df=40$, $GFI=0.913$, $AGFI=0.856$,

RMR=0.053, IFI=0.946, RMSEA=0.099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 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4>, 가설 1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2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3가지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92, p<.001$).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880, p<.001$),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3, p<.05$).

Table 4.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Self Differentiation	→ Social Support	.592	.049	8.031	.000
Social Support	→ Interpersonal Relationship	.880	.118	11.098	.000
Self Differentia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123	.054	2.269	.023

*** $p<.001$, ** $p<.01$, * $p<.05$

다음 <Table 5>은 가설 4인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설 4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Table 5. Indirect effect analysis of Social Support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Self Differentiation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ship	.122	.023	.521	.000	.643	.000

*** $p<.001$, ** $p<.01$, * $p<.05$

분석결과,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5$),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수준 $p<.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76]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 분석 결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를 부분 매개하여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6. Sobel-test result of Social Support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Self Differentiation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ship	6.527	.000

5.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높아짐을 나타내며, 이는 조규판 외(2012)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여 고립되어 있거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2].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적응력이 강하므로[21], 사회화 활동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아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사회적지지 추구방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64], 자아분화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도 더욱 긍정적임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을 보다 낮게 경험하여[77],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밝힌 오난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69],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개인 내적 변화를 촉구하여 대인관계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는 애착 대상이 부모로부터 친구에게로 이동하는 시기로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등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게 되므로[78],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내용이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사회적지지는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사이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또래나 교사에게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지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은 자신의 내면과 행동을 변화시켜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시기에 있어 적절한 사회적지지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며, 학교적응 및 성인기 사회화를 위한 성공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관계를 밝힘으로써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 수준의 증진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및 개인의 차원에 걸쳐 관심을 배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아분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해당 부모를 대상으로 외상경험을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적 문제점의 치료를 위한 가족치료나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 심리적 기제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교육을 통한 지속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상담스킬 등 북한 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일선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이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 선두에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 국가적 차원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으로써, 한민족임을 공고히 하고 학교, 지역사회, 국가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로 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계의 연구가 제시되어야 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비교연구 또는 중단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준거적인 기준을 통하여 차별성을 도출하고, 대상의 변화를 통한 실천적 개입에 대한 변화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더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Unification, *Service Manual o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2018. <http://www.unikorea.go.kr/>
- [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Adapting to North Korean Adolesc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School in the Republic of Korea", *Symposium on Policy Studies*, 2004. <https://www.moe.go.kr/main.do?s=moe>
- [3] Korea Hana Foundation, *A Survey on North Korean Youth in 2016*, 2017. <https://www.koreahana.or.kr/>
- [4] J. S. Hwang,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Maladjustment to South Korea and the Adaptation Plan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9.
- [5] H. S. Kim,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Abil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Dong-A University of Korea, 2013.
- [6] M. Bowen,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 York: Jason Aronson, 1978.
- [7] Y. J.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High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11.
- [8] S. Y. Choi, *A Study on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Communica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With Focus on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of Korea, 2007.
- [9] J. Y. Kim, S. Y. Jung,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for the protection of runaway youth",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pp.1-391.
- [10] S. R. Kim, *The Influence of Parents Attachmen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and Self-differentia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2016.
- [11] T. Leary, H. Lane, A. Apfelbaum, M. della Cioppa, *Multilevel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behavior: A manual for the use of the interpersonal system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Consultation Service, 1956.
- [12] J. M. Seo,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ocial Adjustment that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Perceiv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4.
- [13] Y. S. Park, I. J. Yoon,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for North Korean Migrant Adolescents and its Effects on their Adapt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Sociology*, Vol.41, o.1, p.124-155, 2007.
- [14]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pp.300-314, 1976.
DOI: <https://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15] S. H. Chung, *A Study on the Social Network of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3.
- [16] G. G. Rhee,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Younger Refugees' Social Settlement and the Support Measures in Gyeonggi Northern Area*. Doctoral Thesis, Dae Jin University of Korea, 2017.
- [17] S. K. kim, *A study of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group home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1.
- [18] S. H. Oh, *A Study on Determinants of Adolescents' Adaptation in Low Income Broken Family*.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1.
- [19] K. H. Chae,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for and self-esteem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pp.683-689, 2017.
- [20] S. M. Cheon, *A study on intergration of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focusing on improve empathy ability: Focused on community of philosophical inquir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9.
- [21] M. E. Kerr, M. Bowen,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Company, 1988.
- [22] G. P. Cho, S. H. Woo, G. H. Song,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on ego-resilien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Korean Education Inquiry*, Vol.30, No.4, pp.59-80, 2012.
- [23] Y. W. Choi, *The mediating effects of ego-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10.
- [24] Bowen, M.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M. Jr(Eds.),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1976.
- [25] S. J. Lim, J.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65, pp.173-194, 2017.
DOI: <https://doi.org/10.25152/ser.2017.65.1.173>
- [26] M. Bowen,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1982.
- [27] Y. T. kim, *Family therapy theories : concepts and methods*. Seoul: Hakjisa, 2000.
- [28] M. P. Nichols, R. C. Schwartz,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5th ed)*. Boston: Allyn & Bacon, 2001.
- [29] B. H. Ahn, *Interpersonal relations*. Seoul: Taeyeong publisher, 2010.
- [30] F. Heider,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Psychology Press, 2013.
DOI: <https://doi.org/10.4324/9780203781159>
- [31] H. S. Jang, *A Study on the Effects of Group Diary Writing Program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iary Writing Interest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of Korea, 2005.
- [32] F. B. Evans III, *Harry Stack Sullivan: Interpersonal Theory and Psychotherapy*. London: Routledge, 1996.
- [33] H. S. kim, *The Qualitative Study of the Integrative Counseling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Late Adolescence*. Master's Thesi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6.
- [34] S. M. Kwon, "Psychiatric disease and cognition: Focused on Emotional Disorder",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1995, No.1, pp.49-95, 1995.
- [35] P. Corsano, M. Majorano, L. Champretavy,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Vol.41 No.162 pp.341-354, 2006.
- [36] A. R. Chung,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and ego-resilience to interpersonal problems of high school*

- students.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9.
- [37] T. Leary,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Island Press, 1957.
- [38] M. Y. Bae, E. H.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depression/ anxiety levels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s on self-control abilit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Vol.20, No.1, pp.85-112, 2009.
- [39] J. E. LEE, *Influence of high-school student's peer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6.
- [40] J. T. Kim, *The effect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ing the effect of empathy ability*.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5.
- [41] K. A. Jung, *The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interpersonal problems :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5.
- [42] E. J. Kim, H. M. Kang,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and self-concept in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adolescents` ADHD symptom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5, pp.247-270, 2013.
- [43] E. J. Lee,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emotion*.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of Korea, 2014
- [44] J. Y. Hwang,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child,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2005.
- [45] S. H. Park, N. O. Lee, "The influence of parents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Focus on mediating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Vol.4, No.1, pp.1-18.
- [46] S. G. Han, *The effect of interpersonal trauma expos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adolescent: The mediating role of traumatized self-system*.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3.
- [47] N. R. Ko, *The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and interpersonal problem who had complex trauma in childhoo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8.
- [48] P. A. Thoits,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4, No.4, pp.416,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54.4.416>
- [49] C.J. Dunst, "Revisiting rethinking early interventio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Vol.20, No.2, pp.95-104, 2000.
DOI: <https://doi.org/10.1177/027112140002000205>
- [50]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1985.
- [51] J.S. House,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525 pp.561, 1981.
- [52] Y. S. Park, I. J. Yoon,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for North Korean migrant adolescents and its effects on their adapt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41, No.1, pp.124-155, 2007.
- [53] C. H. Jang, "Social work approach for the adjustment of children and youth from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5, pp.203-235, 2001.
- [54] Y. S. Par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6.
- [55] E. J. Kye, *"It's okay to be North Korean": North Korean refugee university students' self-identity and self-realization*.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of Korea, 2018.
- [56] M. E. Kerr, M. Bowen, *Bowen's theory of family system(Family Evaluation)(S. H. Nam, Y. J. Nam, Y. H. hwang translation)*. Seoul: Hakjisa, 2005.
- [57] Y. R. Lee, J. S. Ho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in early adulthood",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5, No.2, pp.151-165, 2016.
- [58] E. J. Lee, *The influence of self differentiation and perceived couple conflicts on peer relationships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2008.
- [59] O. Peleg, "Bowen theory: A study of differentiation of self, social anxiety, and physiological symptom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Vol.24, No.2, pp.355-369, 2002.
- [60] Y. K. Lee,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satisfaction for women marriage immigrants: Focusing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Doctoral Thesis, Konkuk University of Korea, 2011.
- [61] Y. G.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 between middle adulthood of self-identity and social support, differentiation of self*. Master's Thesis, Hanyoung University of Korea, 2016.
- [62] Y. J. Ahn,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adult attachment*.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of Korea, 2016.
- [63] J. A. Sutherland, L. Cook, P. Stetina, "Women in

- substance abuse recovery: measures of resilience and self-differentiatio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31, No.7, pp.905-927, 2009.
DOI: <https://doi.org/10.1177/0193945909337815>
- [64] Y. S. Choi, H. Y. Kim, “Effect of self-division in youth on stress coping”,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21, pp.1-17, 2005.
- [65] C. Y. Kim, H. S. Jo, “Self-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 and stress level in high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4, No.1, pp.61-70, 2008.
- [66] Y. E. Yang, *A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immigrant youth discontinuing formal education*.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of Korea, 2010.
- [67] W. Furman, D. Buhrmester,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1, No.6, pp.1016, 1985.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21.6.1016>
- [68] M. S. Kim,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of childre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1995.
- [69] L. H. Oh, *A case study about adjustment in South Korea of youth defector*.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3.
- [70] S. B. J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Doctoral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Pusan, pp.28-30, 1989.
- [71] K. H. Lee, “Influence of young and infant care environment on child toughness formation”, *Report of Institute of child welfare*, Vol.2015, No.1, pp.1-44, 2015.
- [72]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G. K. Fa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2, No.1, pp.30-41, 1998.
- [73] D. H. Kim, S. Y. Kim, H. J. Shin, “The study on impact of spous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foreign wives's parenting stress in rural areas”, *Family and Culture*, Vol.19, No.3, pp.53-78, 2007.
- [74] Y. H. Kim,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ived social support,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1999.
- [75] G. A. Kang,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attachment on adolescents' agg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chool maladjustment*. Doctoral Thesis, Baekseok University of Korea, 2014.
- [76]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77] N. R. Shin, C. Y. Ahn,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social anxiety, self-concept, self-efficacy, coping strategy,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3, No.4, pp. 949-968, 2004.
- [78] B. N. Min,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in youth on interpersonal problems :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of Korea, 2016.

채 경 희(Kyung-Hee Chae)

[정회원]



- 2018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졸업
- 2016년 3월 ~ 현재 :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북한사회, 북한교육,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탈북여성